

## 일반논문

- 한길연** |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 김정경** | 『여범』의 독해 방식 연구
- 류정월** | 조선후기 여성 생활의 규범화·탈규범화 관계에 대한 연구  
- ‘세속(세상)의 부녀자’ 담론을 중심으로
- 최기숙** | 구비설화에 나타난 노인 세대의 자식에 대한 기대 수준과 가족관  
- ‘친말보다 나은 양아들(양아들이 효도하기/411-5)’ 유형으로 본 ‘재산증여’와 가족의 해체/재구성
- 이상경** | 일제시대 열녀 담론의 향방  
- 독립운동가의 아내의 ‘순종(殉終)’과 그 맥락
- 김주현** | 불우 소녀들의 기출과 월경  
- 1930년대 ‘소녀 공출’ 전후사
- 진선영** |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 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이화진** | 여배우의 등장  
- 근대 극장의 신체와 섹슈얼리티
- 이태숙** | 붉은 여성과 <근우(槿友)>
- 김혜인** | 구식민자의 젠더화된 초상  
- 두 개의 전후(戰後), 젠더 정치를 통한 식민 기억의 (재)구성
- 이영아** | 박완서 단편 소설의 ‘학생운동’에 대한 시선
- 김양선** |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  
- <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한길연\*\*

## 〈차례〉

1. 서론
2. 여성의 놀이문화의 양상
  - 2.1. 작시(作詩)
  - 2.2. 연회(宴會)
  - 2.3. 잡기(雜技)
  - 2.4. 친잠의(親蠶儀)
3. 결론

## 〈국문초록〉

조선후기 대하소설은 당대의 문화를 섬세하게 재현해냄으로써 단순한 ‘서사물’을 넘어서 ‘문화의 집적체(集積體)’로서의 면모를 지닌다. 그 중 『유씨삼대록』은 특히 당대의 문화를 실제에 근접하게 재현하려는 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작시(作詩), 연회(宴會), 잡기(雜技), 친잠의(親蠶儀) 등의 여성의 놀이문화에 관한 형상화가 매우 구체적이었다.

먼저 여성들의 작시 문화에서는 한 집안의 여성들이 모여 시를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참여하여 시에 대해 품평을 함으로써 남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병풍으로 제작하여 남김으로써 두고두고 완상했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여성들 간의 깊이 있는 연대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식,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깊이 있는 소통이 작시 문화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연회 문화에서는 여성들끼리 모꼬지를 열어 즐기는 과정에서의 상을 차리는 방식, 상에 올리는 음식, 연회자리에서의 예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상층의 가문에서는 상을 개인별로 차려서 먹었고, 이러한 음식에는 산해진미와 더불어 그간 아껴두었던 술까지 내어와 즐겼으며,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윤리교과서적인 연회 문화의 재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 쉬웠을 생생한 장면들이 이들 연회에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바둑, 투호 등의 잡기 문화는 여성의 놀이문화 중 일상적이라고 할 만큼 빈번히 등장하며, 여성이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른의 명령을 받고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녀 간에 하는 경우도 부부 혹은 남매간의 범위를 넘지 않아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아내가 자신을 박대한 남편을 잡기에서만큼은 손쉽게 이기는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놀이문화가 주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통쾌함을 표출하고 있었다.

네 번째로, 친잠의는 일종의 궁중의식이지만 성대한 놀이문화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최상층 여성들의 놀이문화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궁중에서 친잠의를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친잠의에 초대받은 최상층 가문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친잠의에 관해 형상화함으로써, 친잠의 자체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이런 연회에 참여하는 기대와 흥분, 그리고 영광스러움까지 담아내고 있었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에서는 상층 여성들의 놀이문화를 섬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 중 시를 병풍으로 만들어 향유하는 장면, 궁중의 연회인 친잠의에 참여하는 장면 등은 『유씨삼대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유씨삼대록』에 묘사된 여성의 놀이문화는 실록, 문집 등의 문헌기록에도 간혹 보이는데, 이들 기록은 『유씨삼대록』에 재현된 여성의 놀이문화가 사실에 바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한편, 실록 등에서는 놀이문화에 대해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어 여성들이 이를 즐겼을 때의 감흥 등에 대한 내

용은 소거되어 있기 쉬운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런 놀이문화를 하나의 영상처럼 선명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구체성을 확보한다. 이처럼 실제 역사 기록 속의 여성의 놀이문화와 『유씨삼대록』 속의 여성의 놀이문화는 상보적으로 공명하면서 조선후기 여성의 놀이문화를 재구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근의 옛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간혹 보이는 여성의 경우에도 일반 여성들의 놀이문화를 위주로 이루어진데 반해, 『유씨삼대록』 등의 대하소설은 상층 여성들의 고급한 놀이문화를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시대 여성의 놀이문화를 재구해내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어: 유씨삼대록, 대하소설, 여성, 놀이문화, 작시, 연회, 잡기, 친잠의

## 1. 서론

대하소설은 조선후기 미시생활사의 재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관혼상제의 예식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소한 모습들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특히 대하소설은 여성들이 많이 향유한 장르로 여성의 일상생활을 세밀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 놀이문화에 대한 형상화가 구체적이다.

최근에 대하소설의 놀이문화와 관련한 논의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놀이문화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놀이장면이 서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sup>1)</sup> 본고에서는 서사적 측면보다는 놀이문화 그 자체를 조명하는 관점에서 대하소설 속 여성의 놀이문화를 살펴보고

1) 이민희, 「고소설 삽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옥루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 이민희,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문화,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자 한다.

대하소설은 소설이라는 장르적 관점에서 당연히 '서사'가 강조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서사물로서 끝나기에는 너무나 풍부한 내용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대하소설 속에 담겨진 일상의 세세한 모습들은 대하소설이 단순한 '서사물'을 넘어서서 '문화의 집적체(集積體)'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장이나 제문 혹은 전기 등에서 한두 줄로 간략히 언급된 부분들을 대하소설에서는 몇 십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여성과 관련한 당대 문화가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기에 여성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사적 자료이다.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의 실상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듯 훤히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대하소설에 대해 생활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sup>2)</sup> 그러한 접근의 일환으로서 놀이문화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당대의 현실이 그대로 재현되기보다는 굴절되거나 변형된 부분들이 없을 수 없다. 또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이 모든 문화가 조선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도 세세한 측면에서는 조선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대하소설의 특징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대하소설에서 조선적인 요소가 잘 반영되고 있는 점을 논의한 바 있듯이,<sup>3)</sup> 대하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당대 문화적인 측면에서 조선적인 취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하소설을 통해 당대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단지 대하소설에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당대의 문화를 재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역사기록과 관련지어 이를 대응시켜 본다면, 확실한 근

2)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 『완월회맹연』을 비롯한 대하소설에서도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조선적임을 논의한 바 있다.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2005, 48면)

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대하소설 중 당대의 삶을 충실하게 재현하고 있는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sup>4)</sup> 조선후기 여성의 놀이문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작시(作詩), 연회(宴會), 잡기(雜技), 친잠의(親蠶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작시, 잡기 등은 여타의 작품에서도 보이지만 『유씨삼대록』에서는 더욱 더 다채롭게 형상화되어 있으며, 연회, 친잠의 등은 『유씨삼대록』에서 특히 특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대목들이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당대 여성의 놀이문화의 일단을 재구해 보고자 한다.<sup>5)</sup>

## 2. 여성의 놀이문화의 양상

### 2.1. 작시(作詩)

『유씨삼대록』에는 여성들의 작시(作詩) 문화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작시 문화와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조선전기 허난설헌 등이 시를 지었던 전통은 조선후기에 이르면 김호연재, 서영수각, 임윤지당, 강정일당 등으로 이어져 사대부가 여성들이 한시를 즐기는 문화가 활성화된다.<sup>6)</sup> 최근에 발견된 『규방미담』이라는 한글소설을 보면 여성들이 한시를 놀이로 즐기기까지 했음을 잘 알 수 있다.<sup>7)</sup> 또 비록 사대

4) 여타의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80세 이상을 향유하는 것과는 달리, 『유씨삼대록』에서는 실질적인 주인공인 진양공주가 25세에 요절하며, 그 밖의 주요인물들도 40~60세 정도에 죽는다. 죽음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유씨삼대록』이 조선후기 당대의 문화를 실제로 가깝게 재현하려는 의식이 강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참조)

5) 본고에서는 선본(善本)으로 평가받는 20권 20책 국립중앙도서관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참조.

부가 정실은 아니지만, 사대부가의 소실이었던 운초, 금원, 경산, 죽서, 경춘 등은 이웃에 살면서 그들 간에 시회(詩會)를 가지기도 하였다.<sup>8)</sup> 이처럼, 조선후기에 한시를 향유하는 문화는 당대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사대부가에서 집안여성들끼리 서로 모여 한시를 쓰고 즐겼으며, 이를 병풍으로까지 제작하여 감상하였던 문화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sup>9)</sup>

일〳의 공췌 구고기 문안하고 여러 데스쇼고를 청하여 진궁의 도라와 좌를 덩하고 우어 왓 “금일은 췌공의 탄일이라 공이 임의 췌찬으로써 부모기 올니고 곤계로 즐기니 진양이 췌흔 데스로 더브러 남은 음식을 논하고 췌용이 모다 회포를 펴고더 흐느이다” (...) 공췌 혼연이 좌우로 성찬을 나와 췌일토록 즐기더니 (...) “원컨디 금일 즐기므로써 데를 하여 스운 흐나식 지어 승스를 기록하고 타일 즈손으로 하여곰 우리 등 자취를 알게 흐미 가하니 널위부인의 고견은 엇더 흐시뇨” (...) 제부인이 샤례 왓 “엇디 감히 옥췌의 과당흐시를 당흐리잇고 첩 등이 임의 존명을 밧즈와 췌줄을 곰초디 아나습거니와 외람이 옥췌의 츠운흐시를 브라든 목과를 더더 경거로써 감흐믈 원흐느이다” (...) 좌우로 췌연을 나와 일 슈를 일우매 이 엇디 범속 문장으로 니르리오 회두 스이의 스운을 일위 츠례로 벽상의 부치고 서로 칭찬흐믈 마디 아니흐더니 믈득 공이 곤계로 더브러 (...) 곶오디 “금일 제췌 누쳐의 강굴흐샤 천흔 집의 광칙를 빗내시니 감격흐믈 이기디 못하고 췌 빗내

7) 이종목, 『놀이로서의 한시 : 버클리대학 소장 규방미담』, 『문헌과 해석』 통권 37호, 문헌과해석사, 2006 참조.

8)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298~303면 참조.

9) 이에 대해서는 서정민, 『조선 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회, 2010에서도 논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대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당대 여성들의 시작과 관련하여 가려져 있던 부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을프신 거시 잇는가 시브니 당돌흐나 혼변 구경흐물 원흐느이다” 제부인이 다 불평흐여 스샤흐고 낭혹스 부인이 웃고 뒤왈 “으녀즈의 못궤디에 제형이 모드시니 심히 아쳐로온디라 원컨디 외던으로 나가샤 아담흐 연회를 어즈러이디 마르쇼셔” 성의빅이 (...) 좌상의셔 닐오디 “남네 비록 다르나 동그지의 이시니 제취 엇디 우리를 너외흐시리오 흐물며 금일은 츠테의 싱일이라 너외 혼 당의 모다 형테 쇼일흐미 맞당이 정니의 가흐니 옥쥬 안전의 설만흐미 황공흐나 원컨디 제수와 삼미의 음영흐신 거술 구경코더 흐느이다” 제부인이 흘일업서 시녀를 명흐여 벽상의 시를 제혀 성의빅기 보내니 성의빅이 흡신흐고 츠레로 보아 즈가 부인의 문당을 처음으로 보아 심하의 경야흐며 제수제미의 직조를 칭찬블이흐여 말단의 공쥬츄운의 니르러는 얼굴을 슈렴흐고 피석지비 왈 복이 “비록 직조를 자랑내디 못흐나 성명의 통우흐시를 님스와 두 번 장원이 되엇더니 금일 옥쥬의 신명흐신 문테는 즈고로 보디 못흐 배니 하풍의절흐물 마디 못홀 배요 쏘 옥쥬의 글이 깊고 뜻이 높흐시믄 니르도 말고 너모 고상흐시므로 호연이 쓰이여 완둥흐신 거시 적으니 복의 두려흐는 배라” (...) 공쥬 기용화기흐여 다시 쥬찬을 나와 달난흐여 즐기고 제부인 글을 니어 츠레로 병풍을 밋드러 공쥬 침변의 두고 심히 사랑흐더라(8권, 2~11면)

유씨 가문에 하가(下嫁)한 진양공주는 자신의 남편인 유세형이 생일날을 맞아 외현에서 남성들끼리 잔치를 벌이자, 동서들과 시누이들을 진궁에 초대하여 여성들끼리 잔치를 연다. 그러고는 시를 지어 남김으로써 금일의 아름다운 자취를 후손들이 알게 하자 청한다. 이에 여러 부인들이 시를 짓게 되고 진양공주 또한 앞서 지은 시들에 차운하여 마지막으로 시를 완성한 뒤 벽 위에 붙여두고 서로들 감상하게 된다. 이 때 유세형을 비롯한 이 집안의 남자들이 이르러 구경하고자 하나 진양공주의 시누이인 양학사 부인을 비롯한 여성들은 아녀자의 아담한 모꼬지에 남자들이 오는 것이 불가하다 한다. 그러나 진양공주의 아주버니이자 양학사 부인의 오라버니인 유세기 등이 절친한 사이에 내외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면

서 이 모임에 동참한다. 그리고는 여성들이 써 놓은 시를 감상하면서 그 빼어남을 칭찬하다가 진양공주의 시를 보고는 절을 하면서 감탄을 마지 않는다. 이후 진양공주는 이 날 지었던 시들을 모아 병풍을 만들어 자신의 방에 두고 완상하게 된다.

이러한 대목은 사대부가에서 집안여성들끼리 함께 모이는 즐거운 자리에서 시를 짓기도 했던 정황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주제를 같이 하고 서로의 시에 차운하면서 시를 짓는 방식으로, 비록 작가는 다르지만 연작시와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비록 남녀 간에 내외가 있기는 하지만 집안의 남성들도 집안의 여성들이 지은 시를 보고 품평했던 장면을 통해 당대에 한 집안에서는 시를 중심으로 남녀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실제로 부부간에 혹은 남매 간에 화답시를 주고받았던 기록들이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sup>10)</sup> 『유씨삼대록』에서는 여성들 간의 교감,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작시 문화를 통해 선명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들은 여성들이 지은 시가 밖으로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집으로 간행되어 후대에 전해진 경우도 드물게 있었다.<sup>11)</sup> 『유씨삼대록』에서도 보기 드물게 여성들이 지은 시를 병풍으로 만들어 간직함으로써 집안 대대로 시가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던 정황을 형상화내고 있다. 기실 남성들이 자신이 지

10) 부부간에 시를 주고받았던 정황은 유희춘(柳希春)과 송덕봉(宋德峯) 부부의 경우(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제이앤씨, 2008 ; 송덕봉 저·문희순 외 역, 『국역 덕봉집』, 심미안, 2012), 김성달(金盛達)과 부인 연안 이씨, 첩 울산 이씨의 경우(『허경진, 『사대부 소대헌·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푸른역사, 2003, 226~227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매간에 시를 주고받았던 정황은 허난설헌(許蘭雪軒)이나 서영수합(徐令壽閣)의 경우(이혜순·정하영, 『한국 고전 여성 문학의 세계 : 한시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김호연재(金浩然齋)의 경우(허경진, 앞의 책, 225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대표적인 예가 허난설헌의 『난설헌집』이다. 그 남동생인 허균이 엮은 것으로, 조선은 물론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김호연재의 경우에는 일곱 남매가 자주 모여 시를 짓고 이를 『연주록(聯珠錄)』이라는 시집으로 묶어 내기도 하였다고 한다.(허경진, 앞의 책, 225면)

은 시를 병풍으로 남기는 것은 조선후기에 흔한 일이었다.<sup>12)</sup> 『소현성록』에서도 소현성이 흰 비단 8폭에 글을 지어 예서로 크게 쓰자, 구준이란 인물이 소현성의 서법이 왕희지(王羲之)보다도 낫다고 생각하여 병풍을 만든 내용이 나온다.<sup>13)</sup> 그런데 여성이 지은 글을 가지고 병풍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그리 흔치 않다. 신사임당이 쓴 초서 글씨체가 후대에 병풍으로 제작되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sup>14)</sup> 실제 사료에서 흔히 볼 수 없다. 이는 『명행정의록』 등에서 약간 보일 뿐, 여타의 소설에서도 흔치 않은 장면이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여성들이 시를 지어 병풍으로 간직했던 정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진양공주는 자신의 동서, 시누이들과 함께 즐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시를 짓고, 이렇게 지은 시들을 병풍으로 만듦으로써 두고두고 방 안에서 향유한다. 이는 진양공주가 자신이 요절할 것을 알기에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를 시로 남겨 추억하면서 후손들에게도 전수하고픈 의도와 맞물리면서, 여성들이 지은 시가 상자 속에 묻혀버리지 않고 완상품으로서 그 의미가 격상되고 있는 예를 잘 보여준다. 시 짓기를 단순히 한 때의 유희가 아닌, 늘 곁에 두고 즐길 수 있는 예술품으로까지 승화시키고 있는 여성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시 짓기 자체도 고급놀이로서 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병풍을 통해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예술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실상은 당대 여성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일 수 있지만 남매가 공동으로 시집을 펴내는 양상<sup>15)</sup> 등을 통해 볼 때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규방 밖을 벗어나지 않고 규방 안에서만 이를 향유한 것이기에 사대부가 집안에

12) 그 대표적인 예로 추사 김정희의 6첩 병풍을 들 수 있다.(선주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의식과 예술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이러한 기풍은 구한말에까지 이어지는데, 그 예로 한용운의 친필 병풍 등을 들 수 있다.(『한국일보』 2006. 5. 4일자 참조)

13) 이대본 『소현성록』 1권, 85면.

14) 이은상,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수정판), 성문각, 1997 참조.

15) 허경진, 앞의 책, 225면.

서 있을 수 있는 일인 터인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러한 감춰진 여성문화의 일단을 섬세하게 재현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연회(宴會)

앞서 진양공주가 집안의 동서들, 시누이들과 함께 시를 짓는 대목에서도 집안의 여성들 간에 연회가 열렸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한 집안의 여성들 간에 이루어지는 연회가 그 자체로 상세하게 묘사된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기실 봄이 되면 동네 단위로 이루어지는 화전놀이를 통해서도 조선시대 여성들만의 잔치 문화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유씨삼대록』은 집안에서 여성들끼리 여는 소연(小宴)을 통해 여성들만의 잔치 문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죽은 줄 알았던 박씨가 무사히 시택에 귀환하자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집안의 여성들끼리 모꼬지를 여는 장면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문안을 파하고 쇼년부인네 둥당의 모다 정의빚 부인 소시 시녀를 명하여  
 주찬을 나오고 화기를 여러 웃고 왈 “아등이 어려서 뉴문의 드러와 구고의  
 성은과 데스숙미의 지우를 넘어 인세 험난 영욕을 아디 못하고 부귀를 누리  
 터 박부인 화란과 곤익은 세상의 잇디 아닌 경식이어늘 이제 스병지여의 의  
 구상티하여 안향이 그죽하니 (...) 주효를 그초아 박부인고 하상을 권하느이다  
 다” (...) 드티여 순시를 청하니 낭한님 부인이 말녀 왈 “츠인이 니론 죽 아  
 담흔 못그디에 취루흔 풍패 니러나리니 브절 업도소이다” 설영쇼제 낭쇼 왈  
 “성인의 그의 양혜 이시니 더런 뉴 이셔야 무미치 아니리니 아은 세상일을  
 아디 못하느도다” 좌등이 다 웃더라 이윽고 순시 칠보단장을 새로이 어리게  
 하고 드러와 (...) 불의예 혼 그티 급흔 기침을 인하여 통기하는 소리 난간  
 이 터디는 듯하니 좌등이 처음은 다 무슴 이상흔 변인가 놀나더니 이윽고  
 분취 던동하니 만좌 제인의 향기를 거스리느니라 제부인이 일시의 치슈를  
 드러 코흘 그리오니 일노써 이 잔치 일홈을 엄비연이라 하더라 순시 제인의

스매 드러 코 막으믄 보고 오히려 붓그러 늦출 북히고 고개를 숙여 오라도  
 록 말을 아니하니 소시 더의 무류흐믄 보고 제인을 눈주어 진땡흔 후 성찬  
 을 나와 즐기더니 순시 주식을 보매 두 손을 ㄱ로 들고 그 즈미를 즈탁하여  
 슈륙진찬이 상의 ㄱ득흐고 마시 아름다오믄 도히 녀여 일시의 못 다 먹으믄  
 밧바 프른 입시울을 들추며 흙기 후그러 너허 일시 간의 좃빠버 다 먹으니  
 강쇼제 더의 뷔 그르슬 노코 무류히 안자시믄 보고 즈가 상의 진미 수삼과  
 를 움겨 권하니 순시 혼연이 바다 먹으매 (...) 드디어 주비를 나와 서로 권  
 흐매 소시와 당시 다 박쇼져를 향하여 치하흐고 각별 순시를 권하미 업스니  
 순시 노를 먹음고 당부인을 곱히 뒤워 보니 당시 아라보고 썰니 옥잔의 향  
 운을 만작하여 순시를 권하여 (...) 순시 깃거 바다 마시매 당시 년하여 권  
 하니 철팔 비에 미치는 순시 대취하여 만면이 통홍흐고 두 풀을 뽑내여 주  
 흥을 이기디 못하니 (...) 취등의 미친 모습에 나는 고로 브디블각의 넓더나  
 박쇼져를 쓰어 업디르고 압히 노흔 상을 드러 난만이 치며(7권, 44~49면)

좌천되어 지방으로 가는 친정부모를 따라갔던 박씨가 도중에 도적을 만나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후 박씨가 무사히 시택으로 돌아오자 이 집안의 총부 소씨는 이를 기념하여 중당에서 집안여성들끼리 작은 연회를 열게 된다. 이 때 박씨의 적국인 순씨를 잔치 자리에 초대하면 문제가 생길 줄 짐작하면서도 같은 식구끼리 빼놓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순씨를 부른다. 순씨는 이 날 연회에서 방귀를 마구 끼어대고, 음식을 마구 먹어대다가, 대취(大醉)해서는 적국인 박씨를 난타하는 해거까지 벌이게 된다. 모자란 인물로 등장하는 순씨는 잔치자리에서 천둥같이 소리를 내며 방귀를 똥으로써 이 잔치를 ‘엄비연(奄鼻宴)’이라 불리게 할 만큼 멋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상에 놓여 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다 먹고는 다른 사람의 상에 있는 음식을 얻어먹는가 하면, 술이 나오자 대취하여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박씨를 난타한 것이다.

이러한 잔치자리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잔치자리에서의 상을 차리는 방식과 예의범절 그리고 주요한 음식물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순

씨에 관한 일화는 당대 여성들이 잔치를 열 때 한 상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상을 보아 개인별로 먹었으며, 잔치에서 모든 행실을 조심하는 가운데 식탐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잔치음식에는 일반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술까지 곁들였던 점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잔치자리에서 서로 화합을 다지며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술이 오가며 감정이 격해지면서 여성들 간에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이런 예들은 실제 문헌자료를 통해서도 그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잔치자리에서 개인별로 상을 차려 음식을 먹는 장면은 ‘기영회도(耆英會圖, 보물 제 1328호)’, ‘회혼례첩(回婚禮牒,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등의 그림에서 볼 수 있다. ‘기영회도’는 16세기, 회혼례첩은 18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며 조선후기의 잔치 문화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주로 남자들의 잔치 혹은 남녀동석의 잔치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19세기 풍속화가인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기산풍속도첩 중 ‘신부연석(新婦宴席)’이라는 그림에서 신부가 시댁의 여성들에게 인사하는 자리에서 개인별로 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16)</sup> 이는 평범한 서민들이 아니라 귀한 가문에서 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데, 『유씨삼대록』에서 박씨가 무사히 귀환한 것을 축하하는 집안여성들 간의 잔치자리에서 이러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잔치자리에서의 행실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는 『사소절』에 “무릇 혼인 연회에 갔을 때는 (...) 떡이나 고기를 방자하게 먹지도 말라. 또는 (...) 노여움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며, 자리를 넘어 어지럽게 걸어다니지 말라. (...) 온화하고, 신중하고 장엄한 다음에야 그 위와 법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sup>17)</sup>라는 구절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8)</sup> 이덕무가

16) 허인욱,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돌베개, 2010 참조.

17) 『사소절』 제 6 「부의」 1 「동지」(이덕무 저·김동주 역, 『국역 청장관전서 6』(민족문화추진회 편), 숲, 1997, 135~136면)

18) 음식을 먹는 습관과 관련해서 이미 조선전기에 간행된 『내훈』에서도 “남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배부르게 먹으려 하지 말고, 남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손으로 먹지

이러한 경고를 했던 것은 역으로 조선후기 당대 여성들이 연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마구 먹어대는 일이 종종 있었음을 반증한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순씨라는 인물을 통해 망귀를 끼는 등 방종하게 행동하면서 음식을 마구 먹어대는 예의 없는 부녀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술자리에서 시를 짓는 등 고아한 풍치를 즐길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마구 먹어대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정황을 순씨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도 술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양상과 관련해서는 1809년에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엮은 여성생활백과서인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술 만드는 법, 술 먹는 법, 술 깨는 법 등 술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sup>19)</sup> 이는 남편이나 아들을 보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성들도 실제로 술을 마셨기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언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술이 쓰거든 적두(두)어 되을 복가 줌치 너허 더온 김의 술 ㄱ온디 줌그면 뿐마시 업느니라”<sup>20)</sup> 등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하려면 직접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며, “먹양 주독이 니에 드는 고로 상허기 슈오니 흥번 먹은 후 흥번 양치질흥 즉 치통이 업느니”<sup>21)</sup> 등의 술 마실 때의 주의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도 여성들이 실제로 술을 마시는 것이 일정 정도 허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여성시인인 김호연재의 경우, 직접 술을 빚어 마셨으며 술을 마신 뒤의 감회를 읊은 『취작(醉作)』 등의 한시 여러 편을 남겼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sup>22)</sup> 이러한 사료에 걸맞게 『유씨삼대록』에서는 상층 여성들이 그간 아껴두었던 술을 꺼내 함께 마시

---

말고, 밥을 뭉치지 말고, 밥술을 크게 뜨지 말며, 국물을 끝없이 마시지 말라.” 등에서 포식하거나 예의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훈계하고 있다. (『내훈』, 『연행장』, (소혜왕후 저·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43면 참조)

19) 빙허각 이씨 저·정양완 역주, 『규합총서』(개정판), 보진재, 2012, 29~49면 참조.

20) 위의 책, 46면.

21) 위의 책, 47면.

22) 열상고전연구회 편,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사, 2005, 145면 참조.

는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박씨가 모자라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의 연회에 대해 집안사람들이 경고를 함으로써 여성들의 잔치에서 예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연회의 실제적인 재현에 썩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의의가 있다.

요컨대, 『유씨삼대록』에서는 상층 여성들이 모여 작은 연회를 어떤 방식으로 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연회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며, 이 때 일어날 수 있는 정경들은 무엇인지를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다.

### 2.3. 잡기(雜技)

『유씨삼대록』에는 여성들이 바둑, 투호 등의 잡기(雜技)를 즐기는 모습이 십여 차례에 걸쳐 형상화되어 있다. 『사소절』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바둑, 투호 등을 즐기는 것을 강하게 금하고 있다.<sup>23)</sup> 하지만 이는 역으로 이러한 놀이를 여성들이 즐겼음을 반증한다. 『유씨삼대록』에서도 바둑, 투호 등을 즐기는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다 할 만큼 빈번히 등장한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러한 잡기를 젊은 여성들 스스로 즐겨하기보다는 주로 집안 어른들의 명을 좇아 행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일정한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향유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들이 바둑, 투호 등을 즐기는 양상은 크게 여성들끼리만 즐기는 경

23) 바둑, 투호를 언급하기보다는 율놀이, 쌍륙 등의 잡기에 대해 금하는 내용이 나온다. “여자가 율놀이를 하고 쌍륙 치기를 하는 것은 뜻을 해치고 위의를 거칠게 만드는 일이니, 나쁜 습속이다. 중형제·내외중형제·이중형제의 남녀가 둘러앉아서, 대국을 하고 점수를 계산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말판의 길을 닦고, 손길이 서로 부딪치면서 다섯이니 여섯이니 소리를 질러대어 그 소리가 주렴 밖에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음란의 근본이다.”(『사소절』 제 7 『부의』 2 ‘사물’(이덕무, 앞의 책, 161면)) 그런데 바둑, 투호 등은 율놀이, 쌍륙 등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에 같은 부류의 놀이로서 논의할 수 있다.



우와 남성들과 함께 즐기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의 경우 모두 소수의 사람들끼리 놀이를 하는 경우와 집안식구 다수가 모여 놀이를 하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소수의 여성들끼리 바둑이나 투호를 즐기는 장면을 보면, 주로 (시)어머니의 명을 받고는 며느리나 딸이 이를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던 박씨는 지방으로 좌천되어 가는 친정부모를 따라갔다가 도적떼에게 사로잡히는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서 몇 년 만에야 시댁에 돌아왔지만, 그 남편인 유세필이 박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기에 시댁 식구들은 박씨를 유세필 몰래 시어머니인 이부인의 협실에 머물게 한다. 이 때 이부인은 협실에만 있어야 하는 박씨의 갑갑하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자신의 딸과 투호 놀이를 하게 시킨다(7권). 이후 박씨와 유세필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박씨가 순씨에게 술자리에서 난타당하는 봉변을 겪자, 이부인은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세 딸과 박씨에게 자신의 눈앞에서 투호를 치게 한다(7권). 장씨와 관련한 대목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다. 장씨가 진양공주를 모해하는 죄를 짓고 시어머니 이부인의 협실에서 갇혀 지낼 때 이부인 앞에서 시누이인 설영과 함께 바둑을 두는 대목이 나온다(2권). 이부인이 바둑을 두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문맥상 여기서도 이부인의 명으로 바둑을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죄를 짓고 갇혀 지내야 하는 처지에서, 그것도 시어머니 면전에서 스스로 바둑을 두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수의 여성들끼리 잡기를 하는 경우에도 흡사하게 나타난다. (시)조부모에게 아침 문안을 드리기 위해 집안의 젊은 여성들이 모이자 이부인은 며느리와 딸들에게 투호를 시킨다(15권). 여기에는 화락한 분위기를 돋우어 집안의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처럼, 여성들 간에 바둑이나 투호 놀이를 하는 것은 대개 어른들의 명을 좇아 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때 그 목적은 젊은 여성들의

울적함을 풀어준다거나 화락한 분위기로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명분이 있기에 여성들이 잡기를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대의 규범에서 벗어나 작품 내에서 이를 즐기는 장면을 형상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녀가 함께 잡기를 즐기는 경우에도 흡사하게 재현된다. 남녀가 함께 잡기를 즐길 때에도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집안 어른의 명을 받고 행하거나 어른을 모시고 행하게 되며, 남녀 간도 남매 혹은 부부 등의 경우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먼저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바둑을 두는 경우를 보면, 대개 부부 사이를 친근하게 하기 위해 혹은 화락한 분위기로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세필이 모친 이부인 앞에서 누이동생인 사어사 부인 즉 유옥영과 함께 바둑을 두는 것은 화락한 분위기로 모친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이고(6권), 장부인이 아들 유현이 자신에게 문안 올 때마다 며느리 양씨와 더불어 투호와 바둑을 하게 한 것은 서먹한 이들 부부 사이를 친근해지게 하기 위해서다(9권). 이처럼, 잡기를 행하는 경우가 단순히 잡기 그 자체를 향유하기보다는 이를 매개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거나 (시)조부모 혹은 (시)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잡기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자발적으로 여성이 바둑이나 투호 놀이를 하는 대목도 나오기는 한다. 장설혜의 경우 내당에서 장부인을 모시고 있는 유현을 자신의 오라버니로 착각해 “가개 작일 쇼미를 투호 지우물 애들나 흥느니 원컨디 바둑으로 설치흐를 브라느이다”<sup>24)</sup>라고 말하면서 바둑 두기를 자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이후 장설혜는 유현의 둘째부인으로 유씨 가문에 시집와서 유현의 첫째부인인 양씨를 온갖 술수로 모해하다가 쫓겨나고, 중국에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유세형마저 역모죄로 몰아넣으려는 간책을 쓰

24) 9권, 19면.

다가 유현에게 목을 베이게 되는 부정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장설혜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에서 바둑이나 투호를 스스로 즐겨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담아내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녀 다수가 모여서 이들 놀이를 즐기는 대목을 보면, 대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는 가족 모임에서 어른의 명을 받고 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대목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한 집안의 며느리 혹은 딸이 자신의 남편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장면이다. 이들 여성들은 평소에 전혀 이런 잡기를 배우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승은 재주를 드러낸다. 이런 장면은 진양공주와 관련한 대목(4권), 진양공주의 딸인 문창공주와 관련한 대목(15권)에서 나타난다.

먼저 진양공주와 관련한 대목을 보면, 진공 유세형이 자신의 여동생인 유현영과 바둑 내기를 해서 이기면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고 하자 유현영은 진공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니 올케언니인 장부인과 겨룰 것을 청한다. 그러나 또 다른 올케언니인 진양공주의 훈수로 장부인이 이기게 되자, 유현영은 이것이 진양공주의 공이라 하면서 진양공주에게 바둑을 배울 겸 한 판을 자신과 둘 것을 청한다. 그러나 진공은 자신이 직접 여동생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바둑을 두어 순식간에 유현영을 이겨 버린다. 이 때 의기양양해 하는 진공을 보고는 그 모친 이부인이 진양공주에게 진공과 대적하여 그 예기를 꺾으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인 진공과 대국하게 된 진양공주는 세 판을 연달아 이김으로써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진양공주는 평소에 한 번도 바둑을 둔 일이 없음을 집안사람들이 알기에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를 펼쳐 놓은 듯한 수법을 펼치면서 바둑의 명수인 진공을 이기는 것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문창군주인 유영주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유세창은 가족친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모친 이부인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젊은 부부들로 하여금 쌍쌍이 바둑을 두게 한다. 이에 유세창의 아들딸, 조카 딸 부부가 일종의 부부 대결식으로 바둑을 두게 된다. 이 때 다른 부부들

은 다 평범한 솜씨로 비기는데, 문창군주가 그 모친 진양공주와 흡사하게 귀신이 조화를 부리고 용이 춤추는 듯한 신비한 수법으로 그 남편인 소경문과의 대결에서 세 판을 연달아 이긴다. 집안사람들은 문창군주가 평소에 바둑을 배웠거나 둔 적이 없는데, 이렇듯 기이한 솜씨를 발휘하는 것에 놀라게 된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인물로 서술되고 있는 진양공주와 그 딸인 문창군주는 평소에는 전혀 바둑 등의 잡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막상 어른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행하게 되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실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 중 문창군주와 관련된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녕능휘[유세창] 쇼왈 “가둥의 연괴 업고 친척이 제회하여 모친 안전의 즐거오미 극하니 맛당이 쇼년 으비로 하여곰 저허 부”를 빵”이 괴국을 드토아 일시 승스를 표히미 올흔디라 썰니 금판을 나오라” (...) 성의빅이 (...) 굴오더 “모친 심시 새로이 쳐창하시니 너히 남미 맛당이 안전의셔 괴국 승부를 드토아 미음을 위로하시게 하라” 제인이 마디 못하여 투호와 바둑의 뉴로 각” 승부를 드틀 식 (...) 드디어 제쇼년을 차례로 잡기를 식여 우음을 돕더니 차례 문창군주기 미츠니 좌둥의 소싱이 잇는디라 녁능휘 웃고 왈 “금일 유희를 군이 홀로 면티 못하리니 맛당이 덜너로 더브러 혼 판을 시험히미 엇더하뇨” 소싱이 공슈 칭샤 왈 “금일 만가흔 녁위 존전과 제형이 다 실인의 친권이라 쇼싱이 외로운 몸으로 훈아 이미 이셔 둥인 둥 취줄이 날가 두려하느이다” 부풍휘 쇼왈 “즈뵈 엇디 으녀즈의 말을 하느뇨 만일 우리 둥이 덜너를 도아 군을 공격할가 의심홀던대 맛당이 괴를 두로혀 군을 도으리니 모르미 겹히디 말나” 소싱이 역쇼하고 몸을 니려 좌의 나아가 판을 더히매 군쥬 문득 안식을 식”이 하고 봉관을 숙여 니러나디 아니커늘 당부인이 굴오더 “금일 존당의 즐기시물 위하여 엇디 지란히미 이시리오” 제숙이 일시의 니어 직촉하니 군쥬 마디 못하여 나아가 냥인이 더하여 승부를 드틀 식 (...) 진공의 엄둥하므로도 오히려 춤디 못하여 좌를 잠간 나오혀 녁셔의 직조를 보니 (...) 군쥬 일양 안식이 온화하고 괴운이 느죽하여 싱어십늑 세

의 흥 번 불평흥 괴식을 사름의게 뵈디 아나시니 괴국의 유희라도 오히려 스싱의게 스양홀가 녀여 첫 판은 냥인의 직조를 보고더 흥여 아모도 말을 아니터니 싱각디 아닌 군쥬 싱이지” 흥여 흥 번 부형의게 빙흔 배 업고 흥 번 형테로 시험흥 배 업시 임의 판을 당흥매 초옥 곱튼 섬쥬 구슬을 희롱흥여 판 우히 버리매 하락의 수와 풍운의 괴틀을 일워 손 쓰는 조혜 성신 운변을 당똥의 너히 사름이 미쳐 아라보다 못흥여서 판 우히 귀신이 브르고 농희 둔쥬흥여 삼판을 년흥여 이기니 소싱의 의식 궁진흥고 눈이 아득흥여 의연이 당년의 진공이 공쥬괴 패흥던 경식과 곱흥며 군쥬의 신기흥 직죄 공쥬와 방블흥디라 진공이 녀으의 손을 잡고 두긋겨 왈 “녀지 되여 가담을 이기매 일 슈를 스양티 아니미 녀즈의 온순흥 부덕이 아니라 소랑의 무류흥미 이실가 흥노라” 소싱이 쇼이디왈 “쇼세 비록 용이흥나 엇디 으녀즈의게 지미 이시리잇고 처음 말씀 곱흥여 실인의 친당미를 괴렘흥여 모든 안면을 보미로소이다” 제공이 일시의 박쇼 왈 “스스로 직죄 밋디 못흥고 도로혀 짐짓 지는 테흥니 엇디 가쇠 아니리오” 좌똥이 다 군쥬의 직조를 탄복흥고(15권, 66~71면)

위의 대목을 보면 집안의 최고어른인 이부인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둑을 두는데, 이 때 문창군주와 소경문의 차례에 이르자 소경문은 처가에 있어 자신에게 훈수를 두어 줄 사람이 없게 테니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처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대국에 임한다. 문창군주도 바둑 두는 것을 꺼려 좀처럼 바둑을 두지 않으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이 이부인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권유하자 어쩔 수 없이 대국에 임한다. 모두 흥미진진해하며 몰려들던 차에 진중한 진공마저도 자신의 딸과 사위의 대국 장면을 보기 위해 자리를 옮긴다. 이 때 바둑 세 판을 문창군주가 귀신같은 수법으로 연달아 이기자 모두들 깜작 놀라면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이겨서 되겠느냐고 말한다. 한편 소경문은 아내에게 진 것이 열없어 처가이기에 자신이 저 준 것이라고 말한다. 부부간의 바둑 두기를 두고 온 집안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농담을 주고

받으며 단란한 한 때를 즐기는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런데 진양공주나 문창군주 모두 남편에게 무고하게 박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다. 진양공주는 장씨의 간교한 말에 넘어간 남편 유세형이 던진 연갑(硯匣)에 얼굴을 맞는 수모를 당하며, 문창군주는 양성공주와 관련된 일로 말미암아 이후 남편 소경문으로부터 아무런 잘못 없이 구박을 당한다.<sup>25)</sup> 그런데 진양공주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문창군주는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바둑이라는 ‘놀이’를 통해 남편을 제압한다. 이런 장면은 당대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자아내게 했을 수 있다. 놀이가 주는 자유로움으로 인해<sup>26)</sup> 한때마나 당대의 윤리제도로부터 벗어나 남편과 맞서 남편을 능가할 수 있는 호쾌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씨삼대록』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잡기를 스스로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문창군주와 관련한 장면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소경문은 장인의 주선 때문에 호국의 양성공주와 혼인하게 되자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겨 문창군주까지 박대하는 가운데 술을 먹고는 문창군주에게 양성공주와 바둑을 두라고 명한다. 그러자 문창군주는 “첩은 (...) 다만 구고 봉양과 부즈 섬기”의 이시니 도박 잡기의 신묘한 일은 본디 비호디 못했었고 구괴 직상하시니 엇디 감히 부즈의 승취흐를 쫓와 희학을 방즈히 흐여 hing실을 상히오리잇고”<sup>27)</sup>라고

25) 문창군주의 경우에는 바둑 내기를 한 이후로 남편인 소경문에게 구박을 당한다. 그럼에도 구박을 당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진양공주와 마찬가지로이다.

26) 로제 카이와는 놀이의 범주로 경쟁-아곤(Agōn), 우연-알레아(Alea), 모의-미미크리(Mimicry), 현기증-일링크스(Ilink)라는 네 개의 주요항목을 설정한 바 있다. 이때 현기증 즉 일링크스는 일시적으로 지각의 안정을 파괴하고 일종의 기분 좋은 패닉 상태를 일으키는데, 이를 통해 현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종의 흥분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고 보았다. 잡기 등의 놀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당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남성에게 압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은 이런 일링크스적 속성을 통해 통쾌함을 자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다.(로제 카이와 저·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004, 35~57면)

27) 17권, 57면.

말하면서 끝내 바둑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후 양성공주를 교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아예 바둑판, 투호 등을 양성공주의 눈에 띄지 않도록 치워버리기까지 한다. 이러한 점은 『유씨삼대록』에서 여성들이 유희 자체를 위해 잡기를 즐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에서는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 등의 일정한 이념적 테두리 안에서만 잡기 문화에 관해 언급한다. 그럼에도, 일상적이라 할 만큼 이들 잡기를 즐기는 모습이 빈번하게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조선후기에 여성들이 이들 잡기를 선호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후기 사대부가에서 바둑, 투호 등을 남녀가 즐겼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sup>28)</sup> 『유씨삼대록』에서는 그 놀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 2.4. 친잠의(親蠶儀)

『유씨삼대록』에는 궁중에서의 친잠과 관련한 의례 즉 친잠의(親蠶儀)가 등장한다. “봄에 누에가 나면 황후(皇后)는 원중(苑中)의 잠실(蠶室)에서 친잠(親蠶)한다”<sup>29)</sup>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 친잠 의례는 고대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양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국초부터 왕비의 친잠의를 권장하는 움직임이 보이다가 성종 8년에 송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처음 친잠의를 거행하기 시작하여 총 10회에 걸쳐 행해질 만큼 친잠의는 국가적 행사로서 자리 잡는다.<sup>30)</sup> 그런데 왕실에서 왕비를 주축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친잠의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으로서 성대한 연회

28) 허경진, 앞의 책, 173~180면 참조.

29) 『예기』, 『제통편』.

30) 허선헌,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농상지 경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2, 67~71면 참조.

의 성격을 띤다. 그리하여 왕조의 권위를 높이고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내외명부를 교육하는 효과도 지니게 된다.<sup>31)</sup> 『유씨삼대록』에서는 궁궐에서의 친잠의와 관련한 의식이 두 번이나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주목된다.

㉠ 삼춘의 니르매 황휘 늑궁을 거느리셔 상님원의 친잠하실시 너외 명부를 부르시니 태휘 별노 니부인의게 던디하샤 모든 즈부와 당시를 드러 도현하라 하시매 (...) 수일 후 일개 모다 궐등의 도현홀시 당시 태후의 봉하신바 네복과 관면을 궐초아 허가지로 입궐하니 이제 이제 세기는 니부상세오 세창은 한님혹시라 그 처지 다 명부 복식으로 존고를 뵈셔시니 위의와 복록을 인"이 흠양하더라 진양공쥬 존고와 제스를 마자 막츠의 안둔하고 한훤을 므츠매 (...) 태후와 황휘 너외 명부를 거느리샤 후원의 칭상하시를 파하시매 동서로 반츠를 논화 좌를 주시니 외명부의 웃듬은 뉴승상 부인이오 너명부의 웃듬은 녀쥬공 진양공쥬라 (...) 부인이 던폐의 하직하매 태휘 각별후례로 상스하시고 다 각"은스하시미 후하시더라 (...) 명도의 일개 덩당의 함취하여 니부인이 공쥬의 성덕기질을 새로이 칭이경복하며 쇼년 쇼져들은 연석의 거록함과 공쥬의 용화기질이 전의셔 비승하를 서로 닐너 춤이 므르고 혜 달홀 듯하니(3권, 52~59면)

㉡ 츠설 하태휘 심궁의 울적하를 이기디 못하샤 황후로 더브러 후원의 친잠하야 만민의 농상을 권하시고 일시 우회를 쇼견하시를 청하신디 상이 조츠샤 너외 명부를 크게 상님의 부르시니 뉴부의셔 쏘흔 마디 못하여 드러갈디라 (...) (이)부인이 제부제녀와 손부손녀를 거느려 드러가니 도로의 거록하 위의 산히 궐더라 하태휘 뉴가 부인너를 별네로 하쳐 잡아 주시고 궁녀로 존후를 무르시니 (...) 이윅고 태휘 황후와 모든 명부를 거느려 후원의 칭상하기를 파하매 금전의 도라오샤 대연을 여르시니 진찬이 뵈 궐고 향은이 바다 궐하여 니원풍뉴는 농누를 흔들고 팔빅연지는 좌의 나련하니 거록

31) 위의 논문, 104~105면.



흥미 넷날 주공을 봉호시고 경하호는 잔치와 당태후를 피서 치상호는 위의 로되 식 크게 변호여 태후와 정덕황제 아니 계시고 진양공주 별세호여 종격 이 묘연호니 태휘 홀연 감창호샤 천연이 농뉘 흘너 즈금덕의를 적시 "고 니 부인이 호호 텃안을 우러" 감읍호를 씨뉘디 못호여 군신이 다 슬프를 먹음 더니 (...) 종일 진환호고 파호여 도라갈식 태휘 니부인과 누부 제인이며 군 주 등을 괴진이보로 상샤호시고 썬나물 앓기샤 농안의 함누호시니 니부인이 <테읍비스호고> 허다 즈부손녀를 거느려 들너오매(19권, 1~6면)

위의 두 대목은 유씨 가문의 여성들이 궁궐에서 행해지는 친잠의에 참석하는 장면이다. ①은 유씨 가문에 하가한 진양공주가 살았을 때의 친잠의의 모습이고, ②는 몇 년이 지난 뒤 진양공주가 세상을 뜬 후의 친잠의의 모습이다. 그 성대함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인사가 달라져 전에 있던 사람이 없는 모습에 슬퍼하는 광경이 곡진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잠의의 절차가 소개되어 있다. 삼춘(三春)이 되면 황후가 후원에서 친잠의를 행하기 위해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부른다. 이 때 내외명부의 여성들이 잠시 머물 막차(幕次)를 정해주게 된다. 이후 황후를 중심으로 후원에서 채상(採桑)한 뒤에 다시 궁궐에 돌아와 대연을 열고 즐긴다. 특히 채상 후에 “대연을 여르시니 진찬이 피 곳고 향온이 바다 곳호여 니원풍 뉴는 농누를 흔들고 팔빅연지는 좌의 나련호니”라는 대목을 통해서 친잠의가 하나의 놀이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대목들은 실록에 제시된 절차를 빠짐없이 언급할 만큼 꼼꼼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sup>32)</sup> 친잠의와 관련한 대략적인 절차를 소개하면서 궁궐에서 내

32)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친잠의와 관련한 절차들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여성들의 자리에 대해서도 “왕비의 악차(輦次)를 단유(壇墪)의 동문 안의 길 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내명부의 막차(幕次)를 (왕비의) 악차 뒤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외명부의 막차를 (왕비의) 악차 남쪽 단유 바깥 서쪽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상침(尙寢)이 왕비의 채상옥위(採桑褥位)를 단상에 설치하되, 조금 동쪽으로 동향하여 설치하고, 내명부의 채상위(採桑位)를 단하에 설치하되, 동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외명부의 채상위를 단하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

외명부들을 불러 모아 큰 행사를 치렀던 정황을 분위기 있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궁궐의 왕비 중심이 아니라 사대부가 여성들이 친잠의에 참여하게 될 때의 입장을 중심으로 친잠의에 초대받아 궁중에 가는 과정, 친잠의에 참석하는 과정, 집으로 돌아와 그 의식을 회상하는 과정 등이 서술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친잠의 자체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의식에 참석하게 되는 기대와 흥분, 그리고 감격스러움이 곡진하게 묻어나고 있다. 친잠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연석의 거룩함”을 “춤이 마르고 혜 달홀 듯” 말하는 대목에서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다. 규방이라는 집안의 공간을 떠나 화려한 궁궐 연회인 친잠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가문의 여성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에서는 최상층 여성들 사이에서 궁궐을 배경으로 향유했던 친잠의라는 의식이 기념할 만한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자 놀이 문화의 일종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록 등에서는 공식적인 절차를 상세히 묘사하는 데 그쳤다면, 『유씨삼대록』에서는 친잠의에 참여하는 과정 및 왕비와 내외명부들이 담소를 나누는 정경 등을 사적인 감흥까지 곁들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 3. 결론

『유씨삼대록』은 조선후기 문화를 실제에 근접하게 구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여성의 놀이와 관련한 문화 또한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작시, 연회, 잡기, 친잠의 등의 놀이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

되, 모두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고, 서쪽을 위로 한다. (…)”(『성종실록』 성종 8년 윤 2월 27일 조)라고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친잠의 자체에 관한 예식뿐만 아니라 친잠의를 행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가는 절차 등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영조실록』 영조 43년 3월 10일 조)

여성들의 작시 문화에서는 한 집안의 여성들이 모여 시를 짓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참여하여 시에 대해 품평을 함으로써 남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이를 병풍으로 제작하여 남김으로써 두고두고 완상했던 문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실제로 조선시대 남매간에 시를 교환하고 이를 시집으로 남긴 일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대의 사대부가의 작시와 관련한 고급한 여성 놀이문화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 간의 깊이 있는 연대의식, 그리고 여성과 남성 간의 깊이 있는 소통이 작시 문화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의 연회 문화에서는 여성들끼리 모꼬지를 열어 즐기는 과정에서의 상을 차리는 방식, 상에 올리는 음식, 연회자리에서의 예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상층의 가문에서는 상을 개인별로 차려서 먹었으며, 이러한 음식에는 온갖 산해진미와 더불어 그간 아껴두었던 술까지 내어와 즐겼으며, 이런 과정에서 담소를 나누며 즐기는 모습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작시를 통한 여성들의 놀이가 매우 고급한 성격을 띠면, 술주정을 부리면서 몸싸움까지 벌이는 여성들의 소연(小宴)은 당대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가감 없이 담겨져 있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 여성인물을 모자라는 인물로 설정하는 한편, 집안 식구들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는 장면을 덧붙임으로써 윤리적인 완충장치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윤리교과서적인 연회 문화의 재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 쉬웠을 생생한 장면들이 이들 연회에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바둑, 투호 등의 잡기 문화는 『유씨삼대록』에서 십여 차례 이상 등장함으로써 여성의 놀이문화 중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놀이는 여성들끼리 소수로 하는 경우와 다수로 하는 경우, 그리고 남녀 간에 소수로 하는 경우와 다수로 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이 자발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어른의 명령을 받고 주로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남녀 간도

부부 혹은 남매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이들 잡기를 행하는 인물은 대개 악하거나 어리석은 인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작품의 말미에는 호국에서 온 양성공주를 교화시키기 위해 바둑판이나 투호 등을 감추는 대목까지 추가됨으로써 일정한 이념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치 아래 식구들 간에 잡기를 즐기는 모습을 수차례나 형상화하는 가운데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을 아내가 잡기에서만큼은 손쉽게 이기는 통쾌한 장면도 선보이고 있었다. 이는 놀이문화가 주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유쾌함을 남녀 간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최상층 여성들이 즐겼을 친잠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친잠의는 일종의 궁중의식이지만 이것은 성대한 놀이문화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궁중에서 친잠의를 준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친잠의에 초대받은 최상층 가문의 여성들의 입장에서 친잠의에 관해 형상화하고 있었다. 친잠의에 초대받아 궁중에 가는 과정, 친잠의에 참석하는 과정, 집으로 돌아와 그 의식을 회상하는 과정 등으로 크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친잠의 자체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기대와 흥분, 그리고 영광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에서는 일상적인 놀이문화로부터 특수한 날과 관련한 놀이문화에 이르기까지 상층 여성들의 놀이문화를 상세하게 형상화하고 있었다. 작시, 잡기 등의 문화는 여타의 작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씨삼대록』에서는 시를 병풍으로까지 만들어 향유하는 장면을 포착해 내고 있으며, 잡기를 즐길 수 있는 일정한 테두리를 명시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잡기 문화에 대한 묘사가 매우 다채로웠다. 한편 친잠의 등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유씨삼대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유씨삼대록』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수준의 생생한 놀이문화의 재현은 실록, 문집 등의 문헌기록 등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는다. 먼저 실록 등을 보면 그 절차를 상세히 그려냈다 하더라도 매우 공식적으로 서술되어 있

어 여성들이 이를 즐겼을 때의 감흥 등에 대한 내용은 소거되어 있기 마련이다. 『유씨삼대록』에서는 당대 여성들의 실제 음성을 듣는 듯, 이런 놀이문화가 하나의 영상처럼 선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당대 여성들의 놀이문화를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문집 등에 서술된 여성의 놀이 관련 기록을 보면, 소설에서만 큼 상세한 정황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보다는 개개인의 취향으로 취급받기 쉽다. 앞서 정리한 바 있듯이, 『유씨삼대록』 속 여성의 놀이문화와 유사한 내용들이 당대 여성들의 삶에 관한 기록에도 간간히 엿보인다. 이러한 기록들은 『유씨삼대록』에 재현된 놀이문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당대 여성들의 삶에 바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기능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유씨삼대록』만큼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개개인의 문집에 실린 여성의 놀이에 관한 기록은 한 개인에 국한된 특수한 성향으로 간주되기 쉽다. 반면 소설 속에 형상화된 놀이들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 문화로서 읽힐 가능성이 높다. 대개의 고전소설은 한 개인의 특수한 성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보편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창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유씨삼대록』 등에서는 당대에 편재되어 있는 상층 여성들의 놀이를 하나의 문화로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대 여성들 개개인의 놀이 향유에 관한 기록과 『유씨삼대록』 속 여성의 놀이 향유 장면은 서로 공명하면서 조선시대 여성의 놀이문화의 한 축을 재구해내는 근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옛 놀이문화를 조명한 연구의 경향을 고려했을 때도 『유씨삼대록』에 재현된 여성의 놀이문화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옛 놀이문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선인들의 놀이문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로 남성의 놀이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간혹 여성의 놀이문화에 관한 내용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놀이들이 나열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층의 여성들이 즐겼던 고급한 놀이문화에 관한 내용은 좀처럼 살펴보기 어렵

다.<sup>33)</sup>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는 기존의 여성의 놀이문화에서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상층 여성들의 고급한 놀이문화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유씨삼대록』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하소설에서도 볼 수 있는 면모인데, 특히 『유씨삼대록』에서는 시 작품을 병풍으로 만들어 향유하는 장면, 궁궐에서 행해지는 친잠의에 참석하는 장면 등의 최상층의 놀이문화를 재현해냄으로써 여성의 놀이문화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조명한 여성의 놀이문화가 당대의 많은 여성들이 즐겼다는 대중성의 측면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면, 『유씨삼대록』에서 묘사한 여성의 놀이문화는 비록 많은 여성들이 즐겼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대 여성들이 즐겼을 놀이문화의 최고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선시대 여성의 놀이문화를 새롭게 재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유씨삼대록』을 통해 대하소설 속 여성의 놀이문화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성의 놀이문화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대하소설을 대상으로 더욱 더 심도 있는 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에도 『유씨삼대록』뿐만 아니라 『소현성록』, 『옥루몽』, 『명행정의록』 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여성의 놀이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더욱 튼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조선후기 여성의 놀이문화를 확실히 재구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3) 임동권 외, 『민속놀이론』, 민속원, 1997 ; 유승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우리 놀이의 문화사』, 월간미술, 2009 참조.

## 참고문헌

- 빙허각 이씨 저 · 정양환 역주, 『규합총서』(개정판), 보진재, 2012, 1~511면.
-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회, 2010, 121~145면.
- 선주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의식과 예술관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02, 1~241면.
- 소혜왕후 저 ·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427면.
- 송덕봉 저 · 문희순 외 역, 『국역 덕봉집』, 심미안, 2012, 1~125면.
- 송재용, 『미암일기 연구』, 제이앤씨, 2008, 1~412면.
- 열상고전연구회 편, 『호연재 김씨의 생애와 문학』, 보고서, 2005, 1~318면.
- 유승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우리 놀이의 문화사』, 월간미술, 2009, 1~237면.
- 이덕무 저 · 김동주 역, 『국역 청장관전서 6』(민족문화추진회 편), 솔, 1997, 1~191면.
- 이민희, 『고소설 삽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옥루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239~267면.
- 이민희,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문화』,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261~300면.
- 이은상, 『신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수정판), 성문각, 1997, 1~418면.
- 이종목, 『놀이로서의 한시 : 버클리대학 소장 규방미담』, 『문헌과 해석』 통권 37호, 문헌과해석사, 2006, 95~121면.
- 이종목, 『조선 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157~188면.
-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3, 2005, 33~56면.
- 이혜순 · 정하영, 『한국 고전 여성 문학의 세계 : 한시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1~469면.

-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1~654면.
-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414면.
- 임동권 외, 『민속놀이론』, 민속원, 1997, 1~281면.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83~121면.
-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181~209면.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1~30면.
- 허경진, 『사대부 소대헌·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푸른역사, 2003, 1~290면.
- 허선희,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농상지 경영에 관한 역사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2, 1~124면.
- 허인욱, 『옛 그림 속 양반의 한평생』, 돌베개, 2010, 1~287면.
- 로제 카이와 저·이상률 역, 『놀이와 인간』, 문예출판사, 2004, 1~318면.



## Abstract

### A Study on the Recreation Culture of women in *Yussisamdaerok*

Han, Gil-yeon

The river novels of the late Chosun Dynasty function as the 'cultural integrations' beyond the simple 'narratives' through reproducing the culture of those days. Among those novels, *Yussisamdaerok* is the work that has strong mindset toward reenaction of the cultural reality of those days. And the recreation culture of women as verse making, banquet, all-round entertainment, and a silk farming in this novel has been embodied very vividly.

First, in case of verse making, we could examine the communica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point that women in a family gathered and made verses and men joined and evaluated on the poetries created by women. Furthermore, they weaved the poetries into a folding screen and appreciated for a long time. Second, in case of banquet culture of women, we could get informations about the way of setting the table, the foods on the table, the courtesy on banquet and so on. For an example, families belonging to the upper class set the table for individuals and enjoyed all sorts of delicacies and up to the alcoholic drinks prepared for a special occasion. Thirdly, we could see the all-round entertainment, being described most frequently, was performed for elders rather than for women themselves in any case. Lastly, the silk farming, in spite of being a kind of the Court ceremony, had a

appearance of magnificent recreation culture and completed the women culture of the uppermost class.

The aspects of recreation culture, described in *Yussisamdaerok*, are seen in the Annals of the Chosun or other collections of literary works as well. These records say that the recreation cultures reenacted in *Yussisamdaerok* are based on the fact. Furthermore women's cultures of those days in this novel were created concretely and vividly. We can say that the upper class women's recreations reproduced in *Yussisamdaerok* can be a basis of reconstitution of the whole women's recreation culture of Chosun.

Key words: *Yussisamdaerok*, river novels, women, recreation cultures, verse making, banquet, all-round entertainment, silk farming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